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14, 2021 Vol. 785

## 미 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중단 명령...이틀 만에 '무효 선언'

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 주의 '임신 6주후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후 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5 항소법원은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승인한 '태아심장박동법' 시행 중지가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8일 받아 들었다.

이로써 태아심장박동법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은 이틀 만에 백지화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밤 제5 항소법원은 #SB8 (태아심장박동법) 사건에 대한 행정 보류를 허가했다"면서 "나는 텍사스가 연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라이프 투라이프(Texas Right to Life)'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킴벌린 슈워츠도 법원의 결정이 "기도의 응답"이라며 환영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처

슈워츠 이사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하루에 약 100명의 생명을 낙태에서 구하고 있고, 이 엄청난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텍사스가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 물리칠 것이

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번 판결이 낙태 시술이 재개될 시점에 심장박동법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라며 우려했다.

브리짓 아미르 ACLU 생식자유 프로젝트 부국장은 성명에서 "오늘

명령은 이 법이 초래한 혼란이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수해선 안 된다. 이번 금지령의 파괴적인 영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에 대응

하기 위해 합법적인 낙태 의료를 보장하는 3가지 대응을 도입했다.

하비에르 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하여 어디에 거주하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주정부의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는 텍사스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달 자신이 임신부에게 주법을 위반한 낙태 시술을 제공했다며 공개 선언했다.

이에 존 시고 텍사스 라이트투라이프 법률이사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이 의사가 시행한 시술이 '합법적인 스텐트(legal stunt)'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낙태 시술자나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김유진 기자

## 미 8개 도시 순회집회에서 5천명 이상 '예수께 헌신' 다짐



지난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린 첫날 집회 모습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협회

미국의 유명 기독교 예술가들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이끈 14일 간의 "God Loves You" 미국 투어에서 수 천 명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레함 목사는 이번 행사에서 8개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번 전도 집회는 미국의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66번국도'를 따라, 지난달 19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세인트루이스(21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23일), 오클라호마시(25일), 텍사스 주 애머릴로(26일), 뉴멕시코주 엘버커키(28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28일), 애리조나 주

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God Loves You' 투어 성황리 종료... 5만 6천여 명 참석

플래그스태프(30일)를 거쳐, 3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막을 내렸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BGEA) 대변인에 따르면, 이 집회에는 총 5만 6천명을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5천명 이상이 행사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샌버나디노에서 열린 마지막 날 집회 설교에서 "2주 전 우리는 역사적인 66번 국도를 따라 미국 심장부 8개 도시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God Loves You' 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레함 목사는 "오늘밤 샌 버나디노 중점에서, 저는 회중들에게

종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종교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초대에 응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설교했다.

이번 투어에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가스펠 밴드인 '뉴스보이즈(Newsboys)', 미국 유명 기타리스트인 '데니스 아가야니안(Dennis Agajanian)'을 비롯해, 라틴 그레미상 5회 수상자인 마르코스 윌트(Marcos Witt)와 토미 콤스 밴드

(Tommy Coomes Band)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또한 마지막 날 행사에는 캘리포니아 대형교회인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을 이끄는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8개 도시의 14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투어에 협력하여 참석자들에게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레함 목사는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지만, 사람들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나쁜 소식들과 아울러,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하다. 66번 국도와 이 나라의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월경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유 찾아 탈북한 그녀,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 “꿈이 뭐예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홀로 압록강을 건넌 김선영(가명, 38)씨는 올해 추석도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이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선영씨의 가족은 모두 10명이다. 2천 달러면 쌀밥은 먹지 못해도 강냉이 쌀과 소금을 사서 가족 모두가 1년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어렵게 모은 미화 3천 달러를 지난 봄에 브로커를 통해 송금하긴 했지만 북한에서는 월동준비가 한창인 시기이기 때문에 흑여 양식이라도 떨어졌을까 노심초사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는 소식



탈북자 김선영씨.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면 사진을 피했다. ©기독일보

### “통일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알려주고 싶어”

도 마음을 시리게만 한다. 어릴 적 추석에는 송편도 먹고 노릇노릇 구워지는 부침개의 기름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차례상을 만들어 성묘도 가곤 했다. 그러나 흑독했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그가 탈북을 결심한 시기의 추석은 산 사람도 먹을 음식이 없었다.

서민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질 수밖에 없을 때 동네 간부들은 1년에 한번씩 불고기를 구워먹으며 온 동네에 부러움을 샀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평한 사회라고 선전하는 당국이 싫었다. 싫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다.

선영씨는 그렇게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넘었고 꿈을 찾아 태평양을 건넜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의대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는 질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북한에서는 그저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

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지요.”

선영씨의 꿈은 의사다. 응급실은 커녕 약국도 마땅치 않은 북한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단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운 물에 목욕을 시켜 드리고 내 손으로 지은 더운 흰쌀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선영씨는 가족과 재회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북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통일을 염원한다.

김동욱 기자

## 글로리아커뮤니티교회 박정곤 목사 초청 일일부흥회 개최

오는 17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커뮤니티교회(담임 이기업 목사)는 오는 17일(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박정곤 목사(한국 거제 고현교회)를 강사로 일일 부흥회를 개최한다.

이기업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점점 지쳐가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일일부흥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강사인 박정곤 목사님은 선교동원기이자 탁월한 설교자이자 부흥사”라고 소개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오프 라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줌 방식으로 함께 진행된다.

한편 글로리아커뮤니티교회는

일일부흥회에 이어 두 주간 집회를 개최하는데 10월 24일(주일)과 31일(주일)에는 [엘리아-엘리사 내려티브]의 저자인 이기업 목사가 각각 ‘엘리아-엘리사 내려티브 특강’과 ‘종교개혁주일 특강’을 전할 예정이다.

이기업 목사는 “무너진 ‘예배의 회복’과 약해진 ‘믿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열리는 이번 집회에, 일명 ‘나홀로 예배자’와 교회당에 안나가는 ‘가나안성도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당일 현장 예배 장소는 560 S. Motif St., Anaheim 캔버스 클럽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김동욱 기자

**회복을 위한 글로리아 일일 부흥회**  
 “의의 제사 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 4:5)  
 (Offer right sacrifices and trust in the LORD, Ps 4:5)  
**주제: “의제여의”**

**회복 1. 예배의 회복 (예배자)**  
 강사: 박정곤 목사(10월 17일 오전 11시, 오후 2:30분)

**회복 2. 믿음의 회복 (신뢰자)**  
 강사: 이기업 목사(10월 24일, 31일 오전 11시)

**강사: 박정곤 목사 (거제고현교회 담임)**  
 경남거제고현교회 대표회장 (제 2대), CBS 경남방송 이사장(제 3대)  
 UPMA(미전주중추선교회) 이사장(제 3대), 한국교회 언론회 공동회장  
 한국교회 모범적 선교적 교회 (개혁 및 미지립교회 234곳, 해외선교사 472명 후원)  
 (현장 참석 예배자 40명 정월 예약 요망)  
**일시: 2021년 10월 17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분 (ON/OFF)**  
**장소: 글로리아커뮤니티교회/ 이기업 목사, [엘리아-엘리사 내려티브] (CLC, 2021) 저자**  
 Tel. 714-329-2481 website: www.gloriacc.org  
 주소: 캔버스 클럽하우스(ColorHouse)- 560 South Motif St. Anaheim, CA 92805

## 기쁜우리교회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파트타임 청빙

**J.C.C.C. SEARCHING FOR TWO PART-TIME PASTORS**  
 CLICK MORE INFO  
 기쁜우리교회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파트타임 청빙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지역에 소재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겨진 목사)는 파트타임 유초등부 사역자와 중고등부 사역자를 1명씩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정규 신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자로 영어 사역이 가능해야하고, 유초등부 혹은 중고등부 사역에 경험이 있으면 좋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美 한인연합감리교회 2021 찬양 축제 개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KUMC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이하 전평연)는 11월 6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에서 미 전역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찬양대와 평신도들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함께모여 기쁜 찬양” KUMC 찬양축제를 개최한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KUMC)는 “코로나 팬데믹 2년차를 지내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한인이민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로 일상적인 예배와 찬양사역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시기에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모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인교회 성도들의 결속과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위해 온라인 연합찬양행사를 전국평신도연합회와 함께 준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전평연 회장 안성주 장로는 “그 동안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단분리 문제를 앞두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KUMC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행사가 가진 의미를 전했다.

찬양 축제의 총감독을 맡은 김미선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지휘자)는 “미국 곳곳에서 온라인 연합찬양대로 참여하는 많은 교회와 찬양대원들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성도간에 화합과 사랑’이 이번 찬양제를 통해 잘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찬양축제는 KUMC 온라인



2021 전국 평신도 연합회 찬양축제

## 함께모여 기쁜찬양

일시: 2021년 11월 6일 (토) 오후 5시 PST

장소: 벨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

주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주관: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

후원: United Methodist Council on Korean Ministry (연합감리교회 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Y.S. Mae Foundation (매영숙 재단)

이연합찬양대의 합창과 함께 다양한 찬양곡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14일(주일) 한인연합감리

교회 <평신도주일> 행사를 통해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찬양대 찬양이 함께 나누어 질

계획이다. 문의: 김미선 목사 213-369-3861 김동욱 기자

### [감사절 추천도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



원을 배부시며 삶의 한복판에서 친히 만나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시편 136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Days 8부터16은 창세기부터 역사서에 등장하는 여러 본문들을 묵상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Days 17부터 21은 ‘팔복’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한 묵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삶과 신앙의 도전을 거세게 경험하는 때일수록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시며 이를 성실하게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더 확실하게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회복된 감사가 실은 우리를 일으킨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한복판에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로이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소개] 이 책은 이장렬 목사와 이충재 목사가 공저했다. 이장렬 목사는 2010년부터 캔자스시에 소재한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

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B.M.)를 졸업하고 서던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과정(M.Div.)을 이수했으며, 영국 에든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학문적 저술 외에도,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1·2」, 마태복음 1-2장을 다룬 「25일간의 성탄 묵상」, 바디메오 본문(막 10:46-52)에 대한 열 편의 깊이 있는 묵상을 담은 「바디메오 이야기」 등 성도들의 성경 이해와 말씀 묵상을 돕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충재 목사는 현재 미국 뉴저지 동부개혁신학교(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M.Div.)을 이수했으며,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석사학위를, 서던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마태복음의 ‘회개(돌이킴)’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출판하는 등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도 깊다.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쳐도 놀랄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요즘처럼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올 때면, 우리의 하루는 쉽사리 불평과 염려로 그리고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곤 한다. 감사의 계절에 꼭 읽어볼 만한 책이 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요단출판사)는 성경 묵상을 통해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지친 영혼과 삶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3주간에 걸쳐 묵상할 내용을 담고 있는데, Days 1부터 7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구

### 새언약학교 첫 E-Sports 시즌 시작



새언약학교 E-Sports 게임 연습

가을학기부터 100%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새언약학교(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는 올 가을 기존의 여자 배구 및 남자 축구외에 CIF (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에서 주관하는 eSports에 참여한다.

6명으로 구성된 eSports 팀은 방과 후 학교에서 League of Legends 게임을 연습해 왔다. 올 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eSports에 선수로 참여하려면 모든 학생이 3.3이상의 GPA 유지해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는 선수들이 게임을 즐기고,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고성능 컴퓨터 6대를 구입했고 전용 공간도 마련해 주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직접 컴퓨터를 셋업하고 네트워크를 설치하며 공부도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게임을 PC방

이나 부모 몰래 즐기는 오락으로 취급하기보다 공부와 게임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위해 학교 차원에서 eSports 팀을 준비 및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위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일거양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NCA는 WASC 공식인준을 받은 K-12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한인타운내에선 유일한 IB 디플로마/ PYP/ MYP/ DP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다. 1999년에 설립되어 졸업생 전원이 적어도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다수는 전국 톱 30대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NCA에 대한 질문 및 의뢰는 sally.min@e-nca.org 에게로. 학교 웹사이트 주소는 www.e-nca.org 그리고 SNS는 Facebook (@ncahuskies), Instagram (@nca\_huskies) 이다.

##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웬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 눌러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예배시간 안내**

주일 대예배 매주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 저녁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시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10월 29일(금) 오후 7:30

11월 5일(금) 오후 7:30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강사: 최 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5

“한 교회의 선교후원을 위한 선교사 면담”

필자는 지난주에 엘에이 근교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방문하였다. 목적은 교회 선교부의 초청으로 멕시코 신학교에 대한 선교 후원을 위해 먼저 현지 담당자인 선교사를 불러 선교지 현황을 알아보고 또한 선교 후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주일 오후에 마련된 시간이어서 멕시코 현지에서 주일에 배를 마치고 출발한 관계로 국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약 1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6분의 선교부원이 너그럽게 양해해주어 감사했다. 한가지 특별한 기쁨은 필자가 오래전 존경하던 한국 교계의 어르신 목사님의 아드님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었다. 물론 모르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담임목사님이 기도하신 후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의 서리집사님으로 구성된 선교부원들의 질문 시간이 진행되었다. 먼저 필자의 사역 배경에 대한 출신학교, 교단, 목회 경력, 현재 멕시코 선교사가 된 동기, 과정 등 정말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

필자는 교회의 후원을 받기 전에 그렇게 선교부원 전체가 함께 면담하면서 후원 결정을 하는 절차 있는 교회의 경험은 처음이었다. 처음엔 큰 교회 담임목사 청빙 때의 인터뷰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이 가까워 지면서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필자는 선교 후원을 결정하기 전 선교부원 전체가 후원할 선교사를 모시고 면담 시간을 갖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다. 진심이다.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 보였고 이렇게 결정한 선교지에 대한 후원은 앞으로 교회가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나중에 면담 후 저녁 식사를 나누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교회도 후원할 선교사를 직접 모시고 면담하는 것이 교회 역사상 필자가 처음이었다 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에게 후원비를 보내었으나 선교사가 이미 선교지에서 떠난 상태인데도 계속 후원비만 보내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교회가 선교 후원에 대한 실망과 상실감이 빠졌었던 때도 있었다.

특히 멕시코 선교사들에게서 가장 많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마음이 아팠으나 멕시코 선교 현장을 아는 필자로서는 잘 되던 선교지가 여러 연유로 인하여 한순간 실패하고 마는 선교사들을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다.

그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선교부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현지 선교사와 잘 동역하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교적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 하였다. 교회의 생각이 옳다. 교회의 선교 비전을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교회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그렇게 면담과 저녁 식사 교제를 마치고 조만간 선교지에 선교팀이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나누는 후 헤어졌다. 돌아오는 밤길이 고단하였지만, 마음은 기뻐다.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선교부원들처럼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돌아왔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신약에 나타난 로마 군 백부장”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부터 총 4명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만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두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총 일곱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모두 로마 군대 백부장(Centurion)들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7명의 백부장 중에 세 사람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히 오심을 만류하며 말씀만 하시면 족하다는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27:54)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모범을 보인 믿음의 지휘관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네 백부장은 바울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로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 체포하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행22:27). 두 사람의 백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행23:23). 이들은 바울을 보호하기도 하고, 바울을 체포해 가이사라에 주재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은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합니다.

7명의 백부장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밝혀집니다. 고넬료(Cornelius, 행10:1)와 율리오(Julius, 행27:1)라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두 백부장은 그들의 소속 부대도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대(Italian Cohort)소속이었고, 율리오는 황제 대대(Augustan Cohort)소속이었습니다. 두 부대 모두 전통이 있는 로마 군대의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이런 백부장들은 유대 사회에서 실존했던 로마 세력들입니다. 다수

의 백부장들이 유대 지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신앙마저 수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활용하여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군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입니다. 당시 로마의 1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의 사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 시절에는 28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군단은 천부장(Tribune)이 지휘했던 대대(Cohort)가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대대(Cohort)는 여섯 개에서 8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인대는 명칭 상으로 백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8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백인대를 이끄는 지휘관 백부장(Centurion)은 로마군의 기초가 되는 로마군의 핵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15년 이상이 된 노련하고 용감무쌍한 병사들 중에서 선발되어 임명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병졸에서 선발했지만 장교였고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에게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백부장의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이 보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백부장(Centurion)이 지휘했던 ‘백인대’를 기초로 전투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중요했습니다. 요세푸스(Josephus)는 로마가 치른 전쟁들에서 백부장들이 세웠던赫赫한 전과를 기록합니다. 또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us)는 자신의 ‘역사(Historia)’에서 펠시 군대 관

리와 부대 훈련에 백부장들의 중요한(Crucial) 역할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백부장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병사들의 군 생활의 질은 전적으로 자신이 속한 백인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나에 달렸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에 관한 논문이 백부장의 부대관리에 관한 논문이 많습니다. 펠시 부대관리와 전투력 유지는 백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백부장은 모범을 보임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고넬료는 모범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당시 백부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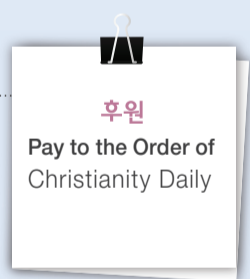
로마는 효과적 부대관리, 전투력유지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 백부장에게 병사 처벌(Corporal Punishment)권을 주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는 백부장 ‘루실리우스(Lucilius)’의 별명이 ‘다른 것을 갖고 와’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병사들 매질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지휘봉(Vitis)이 부러졌고, 그는 ‘다른 지휘봉을 갖고 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처벌이 허용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전장 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백부장의 역할에 달렸던 것입니다. 로마군의 전쟁은 백부장이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전쟁은 백부장의 전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나 군단장은 전투에서 백부장의 전술적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병사를 통솔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된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 퇴역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면세와 자치권이 보장되는 이런 도시에는 병사 출신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였고 백부장은 이런 퇴역군인 도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7.2 강진, 열대성 폭풍

아이티 긴급 구호 요청

규모 7.2의 지진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최소 1,419명이 사망하고 6,900명이 부상했으며 150만 명의 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이 건물과 천막으로 구성된 아이티 마을은 거의 폐허 상태여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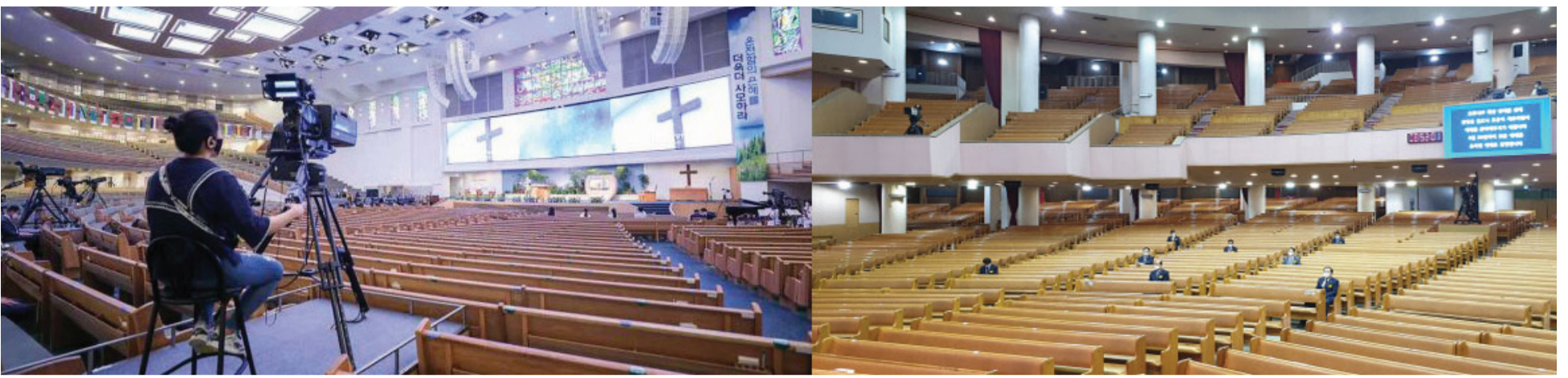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 전경

[특별기고]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3)

#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교회론



1장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 1.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낙심한 영혼들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내와 영적 투쟁에 관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관련된 영적인 교제의 모임에 대해 격려하는 것이라고 첨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히브리서에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대조가 나온다. 옛 언약은 이 세상에 관계된 것들이다. 새 언약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 관련된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새롭게 되었고, 장차 올 세대에 접속되어 있다(히 6:5, 9:11, 10: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을 깨어버리고 들어온 종말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들은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질서 속에 비상적인 긴급조치들이 개입한 사건들이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에 보면, 현재의 세상은 약하지만 장차 올 세상은 순결하다고 대조하였다. 히브리서에서도 불완전한 이 세상과 완전한 미래가 대조적으로 나온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대조에 주목하여야 한다. 거기다가, 두 가지 언약과 세상의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두 가지 대립 관계 사이의 관련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편지는 구약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스 박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옛 언약 속에 새 언약이 미리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구약 언약에는 하늘나라의 실체가 표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새 언약의 시대에 도래하는 것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구약 시대에 나온 것들은 새로운 언약에 비교하면 매우 열등한 것이었다.

특히, 보스 박사는 세 가지를 대조하였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에서 독특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사역의 탁월함인데,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가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자 대조를 이룬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 10-12절에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단에서 올린 제물보다 위대하신 속죄사역을 대조시킨다.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장차 올 것은 찾는다”하는 종말론적 전망을 확고히 심어주었다. 보스 박사가 요약한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대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질 수 있다.

첫째, 장소: 옛 언약은 땅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새 언약의 중심지는 하늘나라다. 둘째, 본질: 옛 언약의 본질은 육체적인 것이다, 새 언약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셋째, 효력: 옛 언약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희미하여 실패했다. 새 언약은 역동적이며, 영원히 함께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목을 갖고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말을 향한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이다. “그 날이 가깝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가장 정확한 영어 성경번역으로 알려진 ESV 신약성경에는 ‘그 날이 가깝다’는 구절을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날’(the day drawing near)이라고 번역되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을 대비하려는 성도가 깨어서 준비하려고 다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다. 이처럼 히브리서에는 종말 신앙의 언급이 깊이 배어있다.

또한 조금 뒷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12장 22에서는 성도가 소망을 갖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히브리서 12장 18-29절에서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기록된 자자들의 총회” 등을 “교회”(히 12:23)와 동등한 개념으로 열거한다. 모두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취와 흔적이 사용되었던 것들인데,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이 지적하듯이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는 곳”은 “교회”이자, “천국”의 영역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격려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재림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주님이 오시지 않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머지않아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기대가 성취되지 않자, 차츰 늦어지게 되면서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도들 간의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서, 아예 “습관”(habit)이 되어서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러한 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에 결석하는 일이 그만 습관이 되어 버렸다. 참석을 중단한 자들의 경우에는 믿음이 작동 중지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에 힘을 썼던 이유는 “말세”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졌던 재림 신앙은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매우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보다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더욱 더 확실히 하고자, 모여서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도들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올 재림의 날을 준비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소망을 나누는 성도들 사이의 격려,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모임이 중요하였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

림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벧후 3:9-12).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임한다”는 사도 바울의 종말신앙은 그의 전체 서신 속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교리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23절에서 피조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멸망이 현저히 저희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론에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망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때로는 핏다리지는 격려를 서로 간에 나누고 있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몸 안에 영혼이 깃들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주신다고 하였다. 주의 영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나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살후 2:1-2)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은 종말신앙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각한 배교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불법의 사람”(살후 3:3)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나타나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경주석자들은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주후 40년에 자신의 얼굴을 황금 신상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지성소에 세웠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가 절대 신앙으로 강요되면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임을 유지하려고 격려했던 이유는 믿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관한 교훈들을 더욱 더 확신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유지되어 나갔던가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승리하신 주님의 왕권을 초대 교회의 신앙내용으로 각인되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23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쳤다. 비록 복음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성도의 완전한 성화이자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그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정치적인 압박, 재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다. 최후 심판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인으로 인정할 것을 확신하면서 서로 격려하였고, 승리를 고대하였던 것이다. (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조직신학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 온라인교육의 선두주자

###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한국, 미국 내 24개 주, 그리고 세계 30개국에서 WMU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전 학위과정 ATS, ABHE 승인
  - 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수료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미국 내 우수 기독교대학 편입 및 상위과정 진학 가능
  -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 | 주소: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388-1000, admissions@wmu.edu | 웹사이트: www.wmu.edu

# “‘일만 성도 파송운동’, 중간에 특 나오지 않았다”

이찬수 목사 “개척 초기 ‘양 도독질’이라는 책의 제목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0일 주일예배에서 ‘탐욕’에 관해 설교하며, 현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 중간에, 어쩌다 갑자기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목사는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고 2002년 3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다. 개척하고 한 달 있다가 책이 한 권 나왔다. 외국 사람이 쓴 책으로 기억한다. 제목이 ‘양 도독질’이었다”며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제목이 19년 동안 제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양 도독질... ‘네 교회 키우겠다고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서 교회 하면 안 된다, 네 교회 채우려고 양 도독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 중간에 특 나온 게 아니”라며 “개척 초기부터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시도를 세 번

이나 했다”고 했다.

이목사는 “처음에 인근 교회(교인들의) 등록을 안 받는다고 했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하지부지 되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인근 교회(교인들의) 등록을 안 받는다고 했다”며 “마지막 네 번째 ‘기존(교회의)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가 철저히 이뤄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 모든 출발이 내 마음에 ‘양 도독질 안 된다, 네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분당우리교회의 ‘일만 성도 파송운동’은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찬수 담임목사가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공시화 했다. 분당우리교회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 명까지를 파송하고,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를 앞으로 10년 간 사용한 뒤 사회에 환



이찬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올해 3월, 분당할 29개 교구의 교역자와 지역을 공개했다.

한편, 이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르게 만든다”며 “

안 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탐욕은 하나님의 명령인,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한다”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복을 달라는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되나. 그것은 그 다음의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항상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복을 먼저 제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두어 두지 말고 흘려보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진영 기자

## 총신대 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목 관련항소심 중단하기로

### 2016년 학교 측의 합격무효처분 후 1심에선 오 목사가 승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제공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하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2017년 제기했던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총신대 이사회가 항소심 재판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총신대는 지난 2016년 12월 오목사에게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합격 무효를 통보했다. 학교 측은 당시 해당 통지문에서 오목사가 "2002학년도 본교 편목편입과정 입학 시 총회 헌법 정치 15장 13조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 교역자(미국 PCA 한인서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신분이었음에도 2001년 입학서류 제출 시 본교단 경기도회 목사후보생 신분의 노회추천서를 제출하고 입학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당시 노회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되어 2001년 신학대학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2016년 8월 27자로 합격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오 목사 측은 "편목과정 자체가 타교단 목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도회 추천서를 제출했던 건 그 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정현 목사가 경기도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듬해 오목사는 법원에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편목)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총신대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목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처지도 않았으므로, 오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했다.

총신대 이사회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거의 4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랬던

것을 총신대 이사회가 더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총신대 "대학 입장에서는 다름에 실익 없다"

이사회는 이런 결정이 있기에 앞서 총신대 측이 이사회에 항소 취하를 청원했다. 학교 측은 관련 문서에서 "2016년 8월 24일에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해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했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며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년 10월 26일 교수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정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했고,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결정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러므로 당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했다.

학교 측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름에 실익이 없다"며 이사회가 항소를 취하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대웅 기자

## ‘포자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참석



윤석열 후보가 찬양 시간 손뼉을 치고 있다. ©유튜브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차 예비경선 이후 첫 주일인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다"며 "이 성경책은 김장환 목사님이 따로 사서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故 조용기 목사 장례 일정 당시인 지난 9월 15일 오후 윤석열 후보와 사학인 대광초등학교를 상기시키며 '대광'을 연호한 뒤,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권면했다.

김목사는 윤 후보에 대해 "대광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 다녔는데, 그동안 의도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목사는 이어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담임)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함께한 목회자들이 모두 윤 후보에게 안수한 가운데 오목사가 대표로 기도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구약을 다 읽어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예배 중 사회자의 말에 따라 일어서서 손뼉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손을 맞잡고 고개 숙여 기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예배 후 이영훈 목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목사님 말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이사가 53장 4-5절을 본문으로 '치료자 예수님(오종복을 II)' 설교를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 도중 손바닥에 그려진 '왕(王)'자가 노출되며 무속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대웅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들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업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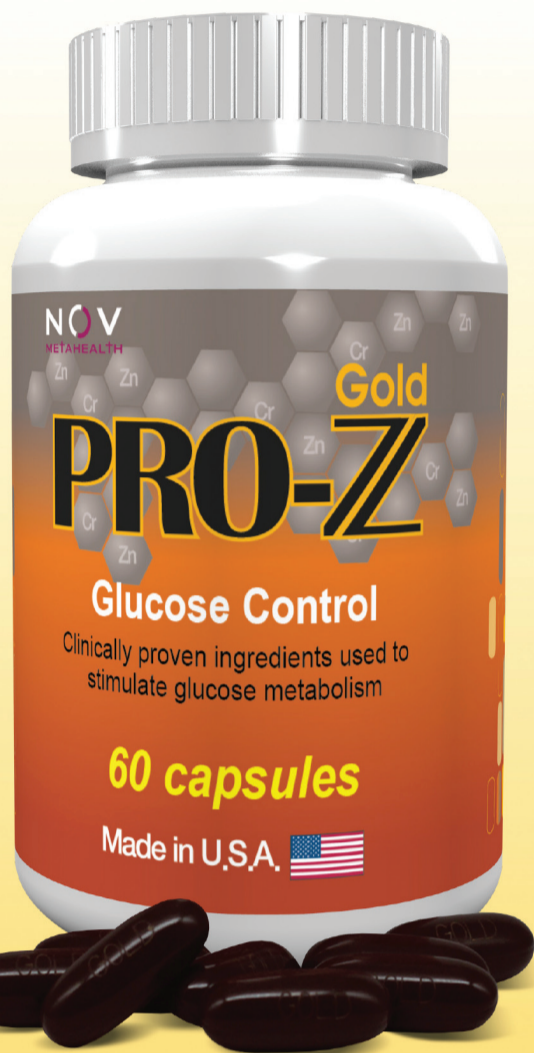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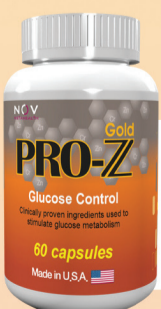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그리스도의 향기를(1)

고린도후서 2:12-16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2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13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14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본문 12-13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적잖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9:4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일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보냈는데 고린도교회도 일 년 전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오기 위해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혹여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2차 장소로 정한 곳이 마게도나였습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아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올지, 고린도에 가서 혹여 디도가 얻어맞고 행패당하고 잘못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으로 디도를 기다리며 선교를 위해 먼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디도가 도착하지 않자 사도바울은 걱정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아 마게도나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문이 열린 상태임에도 디도를 빨리 만나야한다는 다급한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본문 14절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도 엄청난 비전적 소망을 스스로 사도바울 자신에게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사실이 확실하고 내가 회개해서 옛 습관과 옛 삶의 목적과 방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고 쓰임 받고 있다면, 혹여 비판적이고 절망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크고 요긴히 쓰임 받을 것이라는 비전적 소망이 확실하다고 깨달아질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기대를 모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

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 계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결코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아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1.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사도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힘 있게 성장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로마제국이 폴리갑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엔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 군대가 출발하자 폴리갑은 기도하며 숨어있던 처지였습니다.

로마군은 폴리갑의 집으로 가서 그 두 아들을 잡아 고문하며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자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폴리갑이 전해 듣고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그날 하나님께 자신이 향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하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베개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그 불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로마군을 찾아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구하여 돌려보내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예수 패거리리를 만들었다는 죄장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소중하다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하게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너무 안타까워 이곳에 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나 이제 예수 같은 것 안 믿겠다

고 한 마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왕에게 진언하여 너를 특사로 사면하게 하고 너를 고관대작으로 직위도 줄 수 있도록 해주겠네”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 사람아, 나는 그럴 수가 없네.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시어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신 일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하고 대답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자 “자네, 흘려도 단단히 흘렸어.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냐. 내가 자네를 보면 정말 미쳐죽을 지경이네”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친구여, 자네도 내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거든 부디 세상 허망한 기대와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가는 그 길로 따라오기를 바라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화염에 목이 막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깨달아진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폴리갑이 살아서 믿게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함과 담대함,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향기는 화려함이나 거창함은 없었지만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자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향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 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 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전자동 Z-UP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으로

###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모든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자동 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웨스턴빌,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b>\$79</b> +Tax	3병 구입시 <b>\$225</b> +Tax	6병 구입시 <b>\$432</b> +Tax
-------------------------------	--------------------------------	--------------------------------

**213-434-1170**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말에도 온도가 있다

#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고 따뜻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사전  
김소연  
마음산책 | 319쪽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리키는 단어 많더라  
영적 심장은 마음, 감정·생각·이성의 중심  
작가, 마음 관련된 단어 천 가지 넘게 찾아

사람의 몸 안에는 장기들이 있다.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다.

심장은 1분에 70-75번을 뼉다. 평균 312g밖에 나가지 않지만, 건 강한 심장은 매일 7.570L의 피를 97.000km의 혈관을 통해 펌프질한다. 또한 트럭이 32km를 움직이고 도 남을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이런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추어 버리면 사람은 죽는다.

몸 안에 심장이 있듯, 사람에게에는 영적 심장이 있다. 영적 심장은 마음이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의 중심을 상징한다. 곧 마음은 사람의 삶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만큼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어 언뜻 생각해 보아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얼마나 될까?

베두인들에게는 ‘낙타’를 지칭하는 낱말이 천 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이누이트들에게는 ‘눈’의 종류를 구별하는 어휘가 수십 가지 된다고 한다. 스피어 매일매일 퍼붓던 적도 근처의 어느 뜨겁던 나라엔 ‘소나기’를 뜻하는 낱말들이 셀 수 없다고 한다.

마음과 관련된 단어를 천 가지를 넘게 찾고 정의를 한 사람이 《마음사전》을 쓴 김소연 작가다. 김소연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이 어찌면 이리도 많을까 신기해하면서 출발한 작업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곁들에 비한다면 마음을 지칭하는 낱말들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도착해 있다.”

마음과 관련된 단어를 천 개 이상 찾는 작업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의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의 깊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초능력급 마음의 곁 구분하는 작가 마음 표현할 때 단어의 구분이 필요 비슷한 의미 단어들도 다르게 정의**

김소연 작가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경주에서 목장집 큰 딸로 태어났다.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동네에서 사람보다 소 등에 업혀 자랐다. 그 후 서울로 이사했다.

그녀는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따

라서 이 일 하며 동시에 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한 모노 스타일 라이프를 갖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는 강건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은 하기도 전에 몸이 거부하는 이다.

그래서인지 마음에 관해서는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보인다. 고양이처럼 마음의 곁을 쓰다듬느라 보내는 하루가 아깝지 않고, 도무지 아무데도 관심 없는 개처럼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데 천재적이라고 한다.

《마음사전》은 2008년에 출간된 꽤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다. 사전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이 있다. 국어사전에 기록된 단어의 정의를 보면, 이해는 되지만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소연 작가가 정의하고 있는 마음의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이 된다. 또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단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김소연 작가는 다르게 정의를 한다.

이제 《마음사전》에 기록된 마음의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자.

\*유리와 거울: 차단되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는 차단되지 않은 마음. 그것이 유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싶으면서도 그러기 싫은 마음의 미묘함을 유리처럼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는 물체는 없는 것 같다.

가리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유리로 된 용기는 두루 사용된다. 술병도 그러하고 화장품 용기나 약병 같은 것도 그러하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유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허무는 것.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유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단순하게 안과 밖 혹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것들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리는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유리의 뒷면에 수은을 입히면 거울이 된다. 유리는 빛을 투과하고, 거울은 빛을 반사한다. 유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투시하게 한다면, 거울은 우리가 무언가를 반영하게 한다. 반사하고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거울은 오래 들여다보는 이에게 거울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게 한다.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유리를 통해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거울을 통해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소망과 희망: 소망은 지니고 태어나고, 희망은 살면서 지니게 된다. 소망도 희망도 우리의 힘만으론 이루기 어렵다. 희망은 행운이 필요하고 소망은 신의 가호가 필요하다.

\*동정과 연민: 동정은 행동으로 표출되고 연민은 마음으로 표출된다. 동정보다는 연민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묶인다. 마음이 묶여버려서 연민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쾌, 상쾌, 경쾌, 통쾌: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슬프다: 슬픔은 모든 눈물의 속옷과도 같다. 무슨 연유로 울든 간에, 그 가장 안쪽에는 속옷과 같은 슬픔이 배어 있다.

\*허전하다: 상실감 같은 것. 무엇인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 혹은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부재하는 것. 그래서 허전함에는 무언가를 놓아 버려 축 처진 팔이, 팔 끝엔 잡았던 느낌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는 손이 달려 있다.

\*걱정: 걱정은 유대의 힘을 엄청나게 발휘한다. 같은 고민거리를 지닌 자들은 맞대고 도원결의한다. 해결책이 나오면 안 된다. 영원히 보류되는 해결책 아래에서 그 유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해: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질투와 시기: 질투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향해서만 생기는 감정이지만, 시기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생기는 탐욕이다. 질투는 시기보다는 깨끗한 감정이다. 질투 때문에는 잘될 수 있지만, 시기 때문에는 망가지기 쉽다.

질투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는 남의 것을 빼거나 얻으려던 것을 못 얻으면 자기 것마저 잃게 된다.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은 차곡차곡 받은 상처들을, 자존감은 차곡차곡 받은 애정들을 밀천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자존심이 되고 누군가가 불어 넣어주는 것이 자존감이 된다.

자존심은 누군가 할키려들며 발톱을 드러낼 때 가장 맹렬히 맞서고, 자존감은 사나운 발톱을 뒤로 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길고 긴 일기를 쓰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쁜 결과 앞에서, 자존심은 어차피 모든 걸 예감했던 듯 독해지며, 자존감은 모두들 어디로 갔을까 하며 세상이 독하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닫고 만다.

\*고통: 원근감에 속는 것. 그래서 타인의 재앙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프다.

\*까칠함: 고슴도치인 척하는 섬약한 토끼들.

\*꿈: 현실이 처형하지 못하지만, 현실을 처형할 수 있는 것.

\*상처: 통증이 가시고 나면 흉터로 남는 것. 흉터는 곧 삶의 흔적이 된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마음의 단어들을 바르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에도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만 차가운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4-35).”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농담에도 뼈가 있다는 말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수만 가지의  
빛깔을 지닌  
‘마음’에 관한  
‘사전’  
희로애락에오욕  
300낱말이  
마음의 실마리를  
찾게 해준다

몸과 마음 중에서  
특히 마음은  
잘 읽어내기가 어렵다.  
몸은 보고 만질 수 있으나  
마음은 그렇게 하기  
난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인가.  
아니다.  
빛에도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적외선, 자외선이  
있듯이  
마음에도  
마음의 몸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빛깔이 있다.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예배, 교과교과, 마그네틱칼럼, 교과교과, 마그네틱칼럼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청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세계 1위 오른 <오징어 게임> (中)

# <오징어 게임> 기독교 악질적 묘사, 대응책은

근래 콘텐츠, 교회가 악인들만 있는 듯 현실 왜곡  
기독교 신앙 근본적 가치 알아보기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조롱과 비난만 자행, 무지와 적개심 소치  
비판적 논평만으로 왜곡 메시지 차단·교정 못해

◆대중문화 속 기독교 비하: 교회를 악인들의 집합소로 묘사한 <오징어 게임>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노골적인 기독교 비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해 여러 목회자들과 기독교 평론가들이 유감과 우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품 속 기독교 비하 내용 대부분은 작품 중반부에 등장하는 줄다리기와 구슬치기, 그리고 유리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는 한 사이버 교인이 등장한다.

다음으로 지영(이유미 분)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기독교 교역자와 얽힌 자신의 지옥 같은 과거를 이야기한다.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딸인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살해하였고, 이에 지영은 인면수심의 아버지를 칼로 살해했다는 암울한 이야기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악질적인 묘사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해 받아들이는 이들의 비위와 몰상식한 행태가 교회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둘째, 교회가 이런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방치해 뒹뒹시켜 감내해야 할 해악에 대해 되새기게 해준다.

일단 <오징어 게임> 내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방식은 분명 크게 잘못되어 있다. 자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 극악한 예를 든 다음,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 본연의 한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처사는 신앙의 본모습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무지의 소치다. 이에 대한 목회자들과 기독교 평론가들의 비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오징어 게임>에 묘사된 거짓된 기독교인들의 저열한 행태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실책과 이기적인 모습을 신앙과 하나님을

뜻을 들먹이며 합리화하는 행태를 자주 목격한다. 또한 일부 부적격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교회의 성결함을 위협해 왔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오죽 하면 목회자의 성범죄를 중심 소재로 담은 영화가 개봉되었는가. 4년 전 논평한 영화 《로마서 8:37》은 한 중대형 교회 중년 담임 목회자가 교회 봉사에 열심인 대학부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여전히 교회의 중책을 맡는 한국교회의 비정상적 행태를 비판한다.

그나마 이 영화는 신앙의 순전함을 바라는 반대편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범죄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함께 담아내면서 한국교회의 신앙과 정서 전반을 두루 살피려 한다.

반면 <오징어 게임>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 혹은 교역자 신분을 자처하며 어둡고 부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는 이들을 마치 한국교회 교인들과 교역자들의 정형인 것처럼 소개한다. 오로지 악하고 위선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그것이 핵심이자 본질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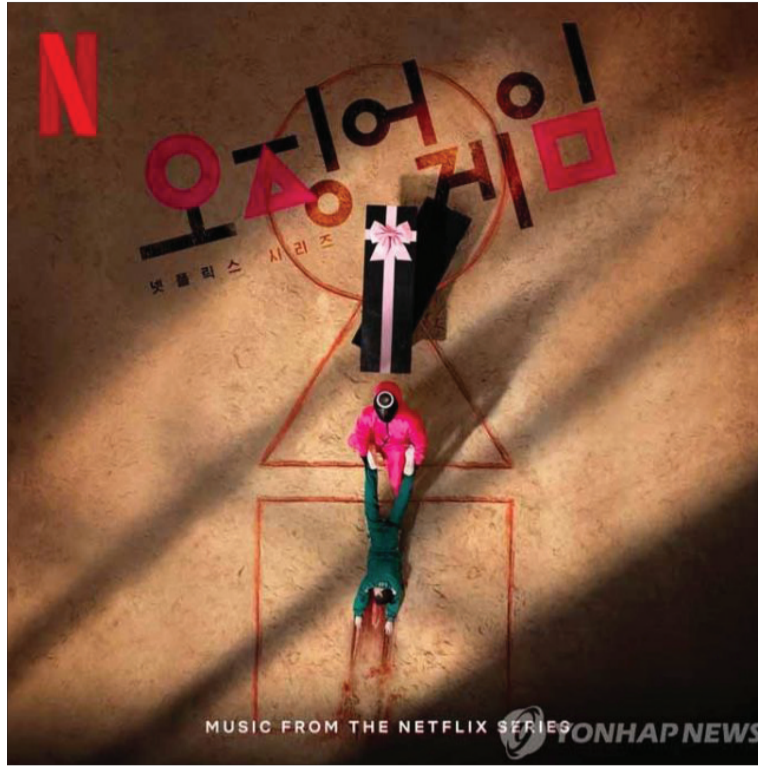
여기에는 분명 교회의 책임도 존재한다. 한국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심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방인과 같이 여기거나(마 18:17)” 혹은 “교회로부터 물리쳐야 할(고전 5:2)” 책임을 오랜 시간 회피한 채 교회의 양적 팽창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급격하게 나빠졌고,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가 거짓과 위선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

◆대중문화를 통한 기독교 변증: 선악의 공존 속에 신앙의 숭고함과 순전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러므로 일단 한국교회 일부 교인들과 교역자들 사이에 잔존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리고 죄악된 습성과 미혹을 파하고, 온전한 신앙의 경신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모습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첫 번째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 비하가 일상화된 대중문화 콘텐



목숨을 건 잔혹한 데스 게임을 소재로 삼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츠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지닌 교회 및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소개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

일단 기독교 신앙을 제법 설득력 있게 격하시키는 콘텐츠가 한번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 파급력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처럼 여러 국가에서 인기를 얻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작품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런 콘텐츠가 공개되면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문화 평론가들이 아무리 그 문제점을 면밀하게 밝혀 제시해도,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계는 대중문화의 기독교 비하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선하고 공의로운 본모습, 그리고 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의 약점과 고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흡입력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 2019년 개봉한 영화 <두 교황>(The Two Popes, 2019)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2013년 전임 가톨릭 교회의 수장 베네딕토 16세(요제프 라칭거)가 퇴위하고, 현재의 수장 프란치스코(호르헤 베르고글리오)가 후임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베네딕토 16세의 퇴위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는 로마 교황청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부패, 그리고 동성애 범죠행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자정과 개혁을 시도하던 베네딕토 16세가 조직 내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것이라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프란치스코의 가톨릭 교회 수장 취임 역시 뒷말이 많았는데, 이는 그가 과거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민주화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가톨릭 사제들을 만류하는 한편, 젊은 사제들이 해방신학에 몰들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지 못하게 차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두 교황>의 서사는 두 사람의 가톨릭 교회 수장이 각각 겪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혹은 교회 차원의 부조리와 불의를 조명하면서, 이런 한계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앙의 순전함은 여전히 송고하며(가톨릭 교인들 입장에서), 이 송고한 이상을 위해 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여전히 싸워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두 교황>의 예를 차치하고서라도,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이 참되고 순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점을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엑소시즘 영화들이다. <엑소시스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엑소시즘 영화들은 귀신에게 붙들린 자들에 대한 연민과 영적 싸움 가운데 겪는 고뇌를 회피하지 않는 헌신적인 구마사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 신앙의 변증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전에 한국에서 개봉한 <검은 사제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가톨릭 교회의 대중문화 활용 방식은 한국교회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톨릭 교회를 변호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가톨릭 공동체가 무조건 선하고 신실한 이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안에 거짓되고 악질적인 이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도, 그런 이들이 가톨릭 신앙의 본모습에서 한참 먼 이들이며, 상당수의 진정한 신앙인들이 그런 위선과 죄악에 대항해 싸우고 경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은 외부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상황 전반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교회 안에는 분명 거짓되고 불의한 거짓 신자들, 거짓 교역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근래 제작되는 많은 기독교 비하 콘텐츠들은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해서 마치 교회가 순전히 악인들로 구성된 것처럼 현실을 왜곡한다.

기독교회가 말하는 거듭남과 구원이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고상하게 포장하기 위한 가상적 이론이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기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조롱과 비난만을 자행하는 무지와 적개심의 소치다.

그래서 기독교계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선한 면과 부족한 면을 납득되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에 나서야 한다.

물밑듯이 쏟아지는 기독교 비하 콘텐츠들에 대해 단지 소극적으로 비판적 논평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이런 대중문화 작품들이 행사하는 왜곡된 영향력과 메시지를 차단하고 교정할 수가 없다.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어려움을 제차 상기시켜 준다. 이 작품에 소개된 기독교인과 목회자의 부정적이고 죄악된 모습은 분명 한국교회 내부의 거짓 신자들, 거짓 교역자들 사이에서 간간히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이버 신앙인을 마치 전체 교회 교인들의 본모습처럼 매도하는 드라마의 묘사는 극도로 악의적인 일반화로서, 신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이런 행태는 교회에 대해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이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만이다. 이 기만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과 조롱의 정서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런 부당한 문화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바깥의 이들이 기독교인 개개인과 교회에 대해 보다 온전하고 균형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품성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 노력이 한국교회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믿는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중고등부 파트타임 교역자 청빙

시애틀 하나교회에서 중고등부 파트타임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3년전에 세워진 교회로 중고등부 학생수는 적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미래의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 속 변화를 주도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경험하신 하나님을 나누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1) 복음주의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2) 영어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포함)  
2) 자기 소개서 (신양간증, 영어)  
3) 사역 비전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5) 목회자 추천서 2장

질문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서류는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sjtj4i61@gmail.com](mailto:sjtj4i61@gmail.com) (Pastor Sang Grossi)

Hana Church is located in Lynnwood, WA, and we are seeking a part-time youth pastor. The youth pastor will serve 7-12 graders to help them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teach the truth according to the Bible, reach students who are not connected to church, and raise up everyday disciples.

**Qualifications:**  
- Must have a passion for youth in Christ's love  
- Must be fluent in English & proficient in Korean  
- M.A., M.A.R., M.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or in the process of obtaining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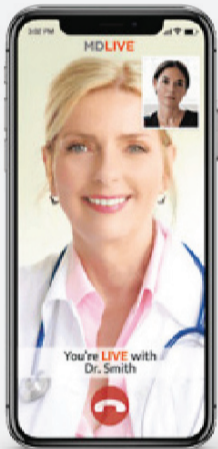
**Required documents:**  
- Resume (English, personal photo attached)  
- Personal Statement (English)  
- Ministry Vision  
- Proof of Attendance or diploma  
- letters of recommendation (2)

Plea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submit all applications to:  
e-mail: [sjtj4i61@gmail.com](mailto:sjtj4i61@gmail.com) (Pastor Sang Gro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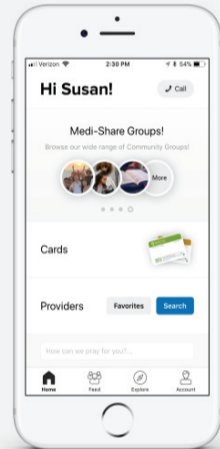
#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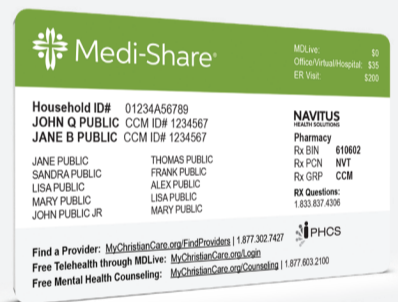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mailto:prozusa2@gmail.com)